

광주신보 창립 30주년...지역 금융안전망 역할 '든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재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 안전망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이사장 기념사와 노동조합위원장 축사, 우수직원 표창, 창립 30주년 기념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재단이 걸어온 성장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했다.

광주신보는 1996년 7월 1일 설립 이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지역경제의 금융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6월 30일 기준 누적 보증 공급액은 8조3000억원, 보증 지원을 받

는 업체는 12만6449개사에 달한다.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광주신보는 최근 하나은행과 '광주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총 1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 경제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은 업체는 12만6449개사에 달한다.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광주신보는 최근 하나은행과 '광주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나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총 1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 경제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염규승 이사장은 "신청부터 심사, 보

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청렴과 인권을 경영의 중심 가치로 삼아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이 남긴 가장 큰 자산은 화려한 실적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살아온 신뢰"라며 "전남과 광주가 함께 새 중동 지역 경제 불안을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를 가장 먼저 듣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재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오비맥주, 폭염 취약계층에 친환경 생수 지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전국노숙인시설협회 3만1000명

오비맥주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 질환 예방과 수분 보충을 위해 재해구호용 친환경 생수 '오비(OB) 워터' 3만1000여병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달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시협회에 8600병,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 2만3000여병을 각각 전달했다.

오비워터는 친환경 생수 전문기업 산수음료와 협업해 생산한 재해구호용 500ml 생수다. 천연 미네랄이 함유된 생수를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없는 국내 유일

100% 사탕수수 유래 용기에 담았으며, 라벨과 뚜껑에도 사탕수수 유래 생분해성 소재를 적용해 친환경성을 높였다.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해 재난 발생 시 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500ml 생수 기준 누적 약 88만병을 기부했다.

구자범 수석부사장은 "앞으로도 희망브리지와 함께 재난 현장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오비맥주는 재해구호용 친환경 생수 '오비(OB) 워터' 3만1000여병을 지원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부터 바뀌 달라"

광주연구원, 산업단지 노동자 1200명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이동환경 개선 요구 가장 높아...안전·복지·식사환경 등도

광주지역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출퇴근 대중교통 편의 확대'를 꼽았다. 산업단지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지만, 교통과 안전, 복지, 식사환경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개선 요구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연구원은 광주 하남산단 등 14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 산업단지 노동자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담은 인

포그래픽을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p다.

조사 결과 산업단지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퇴근 교통과 안전, 복지·편의시설, 식사환경 등 노동자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변화는 '대중

교통 이용 편의 강화'(3.40점)였다. 이어 '주차 여건 확충'(3.32점), '보행 및 자전거 통행 환경 개선'(3.29점) 순으로 나타나 이동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출퇴근 수단은 승용차 이용이 84.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시내버스는 12.9%, 지하철은 2.6%에 그쳤다. 출퇴근 소요시간은 '15분 이상 30분 미만'이 43.2%로 가장 많았다.

산업단지와 행정동간 이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자가용 평균 소요시간은 19~31분 수준인 반면, 일부 산업단지는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필요한 교통 지원 정책으로는 '시내버스 배차간격 단축'(21.8%)이 가장 많이 꼽혔고, '출퇴근 시간 통근버스 운행'(21.4%), '시내버스 노선 신설·연장'(19.5%)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산업단지별 입지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동준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광주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개선 수요가 출퇴근 교통과 안전, 복지·편의시설, 식사환경 등 일상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산업단지를 일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이동과 휴식, 식사,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는 생활환경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신보, 소상공인 채무감면 캠페인

통합특별시 출범 맞아 10월까지 분할상환 완화 등 지원

전남신보보증재단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맞아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와 경제적 재기지원에 '채무전지연 채무감면 캠페인'을 7월부터 4개월 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신용회복과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신보는

캠페인 기간 동안 채무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등 채무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초입금 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약화된 신용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최대 2배까지 연장해 재기여지가 있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했다. 또 채무 전액상환 시에는 채권보전조치 해제비용을 전액 지원하

고, 상환능력과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 지원책이다"며 "채무자의 부담을 낮추고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복귀는 앞당길 수 있도록 재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재용 기자 djawody0316@

문의전화 | 1588-8529

한국인 장을 위한 **맞춤형 유산균**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특허 유래
K-낙산균
(제10-1773059호)

엄선한 설계
4종 포물러

無 화학 부형제
4-FREE